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서울 마포구 창전동 6-264 / hrs3388@gmail.com / 02)365-5412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1/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날짜: 2017년 3월 31일(금)

제목: <2017년도 대선 수권능력시험지> 총 7인 대선 후보자 답변 분석결과 발표

문의: 배경내(0)

[보 도 자 료]

“대통령을 하려는 자, 청소년의 삶에 답하라”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총 7인 후보자 답변 분석결과 발표

○ 안녕하십니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아래 너머본부)는 지난 21일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교육/청소년인권 기본영역>을 발송하여 청소년 교육·인권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질의를 진행한 너머본부는 청소년·학부모·교육·인권단체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의 정착과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활동해온 연대체입니다. 우리는 201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2014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공약을 모아 발표한 바 있고, 2013년과 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의 인권침해적 학교 교칙 사례를 수합하는 <불량학칙공모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생·청소년

년 인권 관련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유력 후보 포함, 총 7인이 답변지 보내와

- 우리 너머본부는 청소년인권에 관한 관심과 정책능력이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라고 판단, 학생.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시험지 형식을 취해 10가지 교육·인권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번 시험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당의 후보자 10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쁜 경선 과정에서도 남경필, 유승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총 7인의 후보자가 답변지를 보내 왔습니다.

발송 대상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심상정	남경필	유승민	홍준표	김선동
소속 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민중연합당
답변 유무	○	○	○	○	○	○	×	×	×	○

타 후보들과 사뭇 비교되는 세 후보

홍준표는 "경선 후에", 유승민은 "여유 없다", 남경필은 연락두절

-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당내 경선이 끝난 후 답변하겠다"고 답해,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답변을 보내온 다른 후보에 비해 경선 레이스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이 완료되는 오늘 이후, 홍준표 후보가 과연 답을 보내올지, 보낸다면 어떤 답을 보내올지 주목됩니다. 우리 너머본부는 홍 후보가 답변을 보내올 경우 2차 보도자료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여유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같은 당의 남경필 후보는 통화를 하고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이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답변을 보내온 다른 정당과 사뭇 비교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청소년인권 정책 도입, 후보들 압도적 지지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 기대에 크게 못 미쳐

- 채점 기준과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안지 채점 결과는 아래에 붙입니다. 채점 결과, 너머본부가 제시한 정책의 다수가 후보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어 향

후 시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반면 후보자간 격차를 보여주는 정책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탄핵 촛불'의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이면서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답변을 내놓아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아쉬운 답변을 보내온 문재인, 안희정 후보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공약을 보강하고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기 대선, 청소년의 삶에서도 민주주의의 새 역사 쓸 수 있기를

- 우리 너머본부는 몇몇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격차가 드러났지만, 다수의 청소년 인권 정책에 후보 모두가 찬성 의사를 보여준 사실에 주목합니다. 너머본부가 제시한 정책들에 10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후보들이 차기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각 정당에서 가진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머본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청소년인권 정책이 보강되고, 정치권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향상됨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응답하는 정치'**가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쓴 '탄핵 촛불'의 힘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선은 **'청소년의 삶에서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는 도약대'**가 되기를, 나아가 청소년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 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발송한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와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변 원본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페이스북 '인권친화적 학교 +너머 운동본부' 페이지를 비롯한 SNS에서도 관련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에 감사드리며,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별첨] 후보자 7인 답안지 분석 결과
[별도 첨부파일] 각 후보자 답변 모음

"대통령을 하려는 자, 청소년의 삶에 답하라"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총 7인 후보자 답변 결과 발표

1. 분석 개요

-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는 총 10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변자 중 5인에 객관식으로 정책 질의에 응답해주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 힘들다'며 주관식으로 별도의 답변지를 보내왔습니다. 주관식 답변으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한 두 후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답변의 핵심에 비추어 사실상 반대인지 찬성인지를 판단하였습니다.

2. 답변 결과

**: 객관식 답변 후보, 청소년 인권정책에 압도적 지지
주관식으로 답한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기대에 못미쳐**

- 답변 분석 결과, 답변을 보내온 7명의 후보 중 객관식으로 시험에 응한 5명의 모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청소년인권 정책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명도와 영향력이 높아진 각 당의 후보들이 청소년인권 정책의 중요성에 지지를 표하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소년인권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 반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3위를 다투는 문재인, 안희정 후보의 경우, 전반적으로 제시된 정책에 부분 찬성하거나 소극적,부정적으로 답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문항	김선동 (민중연합 당)	문재인 (민주당)	손학규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안희정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1. 학습시간 축소 정책 ▲학습시간 섣다운제 ▲야간학습 금지정책 ▲학원휴일 휴무제	찬성	사실상 반대 (기초학력보장, 학생성장단계 맞춤 교육과정 통해 축소 유도)	찬성	부분 찬성 ('심야교습제한'만 찬성)	찬성	사실상 반대 (대학서열화 완화로 축소 유도. 별도의 제도 도입은 반대)	찬성
2. 입시제도 개혁 ▲특수목적고·자사고 폐지 ▲수능의 자격고사화 ▲시험 축소	찬성	부분 찬성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만 언급)	찬성	찬성	부분 찬성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반대)	부분 찬성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교육감 권한, 수능 자격고사화는 국가미래교육 위원회 결정에 위임, 시험축소는 찬성)	찬성
3. 체벌 및 언어폭력 근절 ▲체벌·언어폭력 프리 정책 ▲가해행위자 사법조치 강화 ▲학원조사감독체계 마련	찬성	부분 찬성 (교육현장에서의 체벌과 언어폭력 용납 못함. 구체적 대책은 적극 검토)	찬성	찬성	찬성	부분 찬성 (폭력 근절에는 동의. 사법조치 강화에는 부정적. 필요한 정책을 두루 검토하겠음)	찬성
4. 청소년 참정권 확대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및 활동 ▲표현의 자유(선거운동)	찬성	부분 찬성 (18세 선거권 하향)	찬성	찬성	찬성	부분 찬성 (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 조정)	찬성
5. 전국 수준 학생 인권법 제정 ▲두발복장규제 전면 폐지 ▲학내외 집회·표현	찬성	사실상 반대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만 언급)	찬성	찬성	찬성	사실상 찬성 (취지에 두루 공감)	찬성

의 자유 보장 ▲인권침해조사청구권 포함							
6.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취업률에 따른 학교 차등지원 폐지 ▲노동인권 침해 사업자 처벌 강화 ▲공공부문 청소년 일자리 창출	찬성	사실상 반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안심알바가게 협약 등 아르바이트 청년 대책만 제시)	찬성	찬성	부분 찬성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는 반대)	사실상 찬성 (취지에 두루 공감)	부분 찬성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는 반대)
7. 청소년참여기구 정상화 ▲학교운영위 학생참여 보장 ▲청소년참여기구 발의권 보장 ▲발의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도 도입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찬성	부분 찬성 (참여권과 결정권 실질화 등의. 학생회 법제화만 언급)	찬성	찬성	찬성	사실상 찬성 (취지에 두루 공감)	찬성
8. 학교폭력예방방법 개정 ▲징벌적 생활기록부 기재 폐지 ▲피해자 보호 및 회복조치 강화 ▲회복적 해결절차로의 전환	찬성	부분 찬성 (회복적 학교폭력 해결절차로의 전환 추진)	찬성	찬성	찬성	사실상 찬성 (취지에 두루 공감)	찬성
9.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 ▲기본소득 도입시, 청소년도 주체로 인정	찬성	사실상 반대 (기본소득 입장 유보. 수당제도 검토 중이나 재원 고려해 청소년은 제외)	찬성	찬성	찬성	사실상 반대 (기본소득 입장 유보. 국가재원 등 고려해야)	찬성
10. 법적 방어권 강화	찬성	부분 찬성 (공식 후보로)	찬성	찬성	찬성	사실상 반대 (일부 개선)	찬성

▲사법절차, 근로계약 등에서 보호자가 아닌 신뢰관계인을 보조인으로 지정할 권리 보장 ▲법률대리인 지원제 강화		결정된 이후 법적 방어권 강화 포함한 10대 인권정책 발표할 계획)				필요성에 동의하나, 간단한 문제 아님)	
---	--	---------------------------------------	--	--	--	-----------------------	--

3. [핵심 요약] 답변 결과를 통해 본 주요 경향 해설

1) 체벌.언어폭력 근절, 청소년 참정권 확대, 학교폭력법 개정, 학생인권 전국적 보장 등 대세 정책임이 확인

○ 답변을 보내온 후보 전원

- ㉠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교육불평등 완화
- ㉠ 청소년에 대한 체벌.언어폭력 근절 조치 강화
-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보장
- ㉠ 스펙기구화·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청소년참여기구에 실질적 권한 보장
- ㉠ 징벌적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회복조치가 부족했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정책 마련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대선 후보자 또는 차기 대통령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후보들과 소속 정당이 지속적 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경우, 모든 후보가 선거권 하향에 찬성하였고,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찬성하였으며,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청소년의 피선거권과 표현의 자유(선거운동) 보장에도 찬성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학생 두발·용의복장 규제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한 전국적 수준의 **학생인권법** 제정의 경우,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 모두가 찬성하여 지역별 학생인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 제정 필요성이 정치권에 두루 지지를 얻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만 언급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식을 보였습니다.

- 청소년이 보호자의 일방적 합의 강요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인 지정권 등을 보장하는 **청소년 법적 방어권 강화**의 경우, 안희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동의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 정책은 후보자 결정 이후에 내놓겠다고 답했으나 법적 방어권 강화 방향에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2) 후보자간 수준차를 드러낸 정책과제들

-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OECD 최장의 아동학대 수준입니다. 학습시간이 줄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으나 문재인, 심상정, 안희정 후보는 별도의 제도를 통한 당장의 축소 방안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습시간 문제는 대학입시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자연스러운 축소를 기대할 수준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였던 것처럼, 학습시간 축소도 별도의 법률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 교육 불평등 완화 방향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지만,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수준차가 드러났습니다. **특목고·자사고**는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의 저연령화를 부추기는 교육 불평등의 온상임이 이미 사회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안철수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교육감 권한이라고 답했으나, 전국적으로 포진한 특목고·자사고 문제는 개별 지역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적 사안입니다. 또한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에도 찬성하였습니다.
-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잇따른 현장실습 고교생들의 사망과 불법파견이 이어져 이미 개선으로는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고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폐지에 반대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침묵하였습니다. 취업률에 따른 학교 차등지원 폐지, 최저임금·주휴수당 갈취 사업자 처벌 강화, 공공부문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침묵한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습니다.
- 보호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탓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면 청소년의 경제 자립을 지원할 정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기본소득**의 즉각 실현 여부를 떠나 청소년도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청소년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기본소득제도 자체에 유보적 입장을 가진 탓에 이 질문에 유보적 입장으로 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차기 대선, 청소년의 삶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도약대 되길

- 우리 너머본부는 몇몇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차이를 보였지만, 다수의 청소년 인권 정책에 후보 모두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너머본부가 제시한 정책들에 10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후보들이 차기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각 정당에서 가진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머본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청소년인권 정책이 보강되고, 정치권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이 향상됨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응답하는 정치'**가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쓴 '탄핵 촛불'의 힘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선은 **'청소년의 삶에서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는 도약대'**가 되기를, 나아가 청소년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끝)